평 안 도

성왕부군도당굿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1992년9월23일~9월25일, 경북 구미시

평안북도민속보존회

人　事

全國 각 지방의 固有한 民俗이 總出演하여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 제33회 全國民俗 藝術競演大會가 한국의 첨단산업도시 구미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平安北道 民俗保存會에서는 이번 대회에 「평안도성왕부군도당굿」을 출연, 祖上의 슬기와 찬란한文化를 펼쳐보일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오랜 歷史를 이어오는 동안 조상들로부터 많은 文化遺産을 이어받아 계승 발전시켜 왔으며 또한 後孫들에게 잘 보존하여 물려주어야 할 責務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국이 分斷되어 40여년의 한을 간직한 채 우리의 鄕土문화예술은 北韓共産集團의 우상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文化와 藝術이 이질화되고 흔적없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오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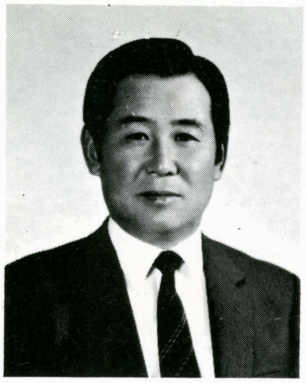
우리는 이러한 역사와 문화의 斷切을 克服하기 위하여 우리 고유의 文化藝術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正確하게 재현하여 새로운 文化暢達에 기여하는 동시에 後孫들에게 값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전도민이 깊이 認識하여 매년 열리는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참가를 계기로 故鄕의 민속문화에 聲援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때 우리 平北道民이 가꾸어온 문화예술의 優秀性과 자랑스러움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무한한 긍지와 自負心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금번 「平安道 성왕부군도당굿」출연을 위하여 아낌없는 支援와 격려를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우리의 傳統民俗藝術을 발굴하고 후손들에게 祖上의 빛난 얼과 자랑스러운 예술성을 심어주는데 最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本大會 參加를 통하여 우리 民族固有의 문화예술이 찬란하게 꽃피고 자손만대에 길이 빛낼수 있는 크나큰 結實을 거둘것을 祈願하면서 道民 여러분의 聲援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992년 9 월

民俗保存會長 崔 滿 檍



激勵辭

예로부터 學問과 忠節의 고장으로 이름높은 慶北 龜尾市에서 傳統 文化 藝術의 大祭典인 第33回 全國民藝術競演大會가 열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 道를 代表하여 「성왕부군 도당굿」이 出演하여 祖上의 얼과 우리 固有의 民俗藝術을 再現하게 된것을 2百萬 道民과 함께 祝賀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겨레의 繁榮을 期約하는 根源적인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性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經濟的 豊饒가 우리 몸의 飮食이라할 때 文化藝術은 곧 우리가 숨쉬는 空氣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民俗文化藝術의 暢達과 선양에 온갖 精誠을 기울여 온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悠久한 歷史속에서 各 地方마다 固有의 傳統文化를 끊임없이 繼承 發展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分斷 半世紀동안 우리의 鄕土 文化藝術은 北韓공산정권의 造作과 歪曲으로 단절, 變質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最近 두고온 故鄕의 文化에 對한 뿌리를 찾고 이를 繼承 發展시키고자 하는 勞力이 활발하게 展開되고 있음은 우리 傳統文化의 硏究 振興이라는 次元에서 참으로 所望스럽고 鼓舞的인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道民은 大望의 統一의 時代가 한걸음 한걸음 다가오고 있는 이 時點에서 先祖들의 叡智와 슬기가 담긴 우리 道의 民俗文化를 傳承 保全하는데 더 많은 關心과 勞力을 기울여 平北人의 自尊과 矜持를 드높이고, 우리가 살았던 故鄕땅에서 자랑스러운 이 鄕土文化의 빛을 되살리고 활짝 꽃 피울 수 있는 土壤을 가꾸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民俗文化藝術들을 通하여 全道民의 和合과 團結의 基盤을 더욱 튼튼하게 다져서 前進과 繁榮 그리고 統一의 原動力으로 昇華 發展시켜 나아가기를 期待하는 바입니다.

이번 大會에 出演하는 "성왕부군 도당굿"의 再現을 위해 物心兩面으로 努力해주신 民俗保存會 崔滿檍會長님을 비롯하여 關係者 여러분의 勞苦에 對하여 2百萬 道民과 함께 깊이 感謝와 致賀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大會를 主管한 關係當局과 龜尾市民 여러분들의 格別하신 聲援에 심심한 感謝를 드리며 民族文化 暢達에 크나큰 結實이 있기를 祝願합니다.

1992년 9월

平安北道知事 張 正 烈

평안북도민속보존회

회장:최남억 고문:조창석 이상준 김경호 이사:김득린. 김태신 이완희. 현이복 김경용. 현두경 김기성. 유명화 김신삼. 김상호 강오륜

〈당 주〉

정대복(76세)

〈제 관〉

장영희

〈피 리〉

김동규

〈장 고〉

이춘홍

〈장 고〉

이명서

양선옥

김남순

이종남

김동현

김두연

송석란

전을숙

장정님

유오목

김진난

김종남

변경자

정춘자

김미화

강윤숙

박순자

임종순

이영자

이광성

박복자

김진규

박춘자

조화자

강완표

박태근

김정임

김미옥

고현옥

최기자

백순자

황정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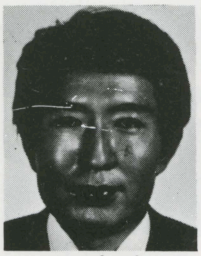
곽창수

정원혜

이상희

강순이

방춘자


고용언

김영태

박정옥

김영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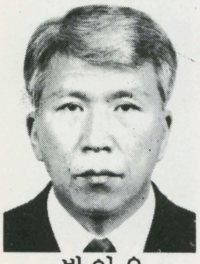
윤춘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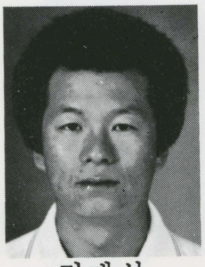
김영복

최성자

박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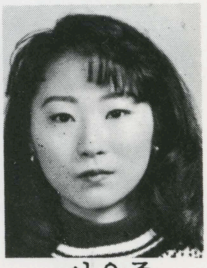
고광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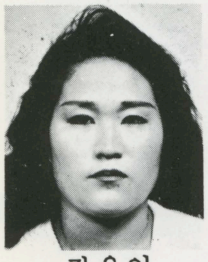

박인오


김재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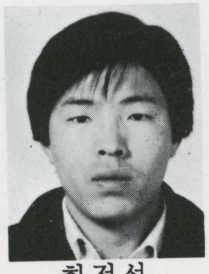
심영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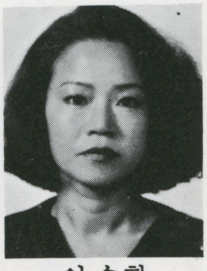
이강호


이은주


강옥임

손춘자


한정섭


안순학

이근옥

김재섭

노봉재

이희숙

김민식

김기순

이길순

김광섭

이상연

박명란

강춘옥

황명숙

홍선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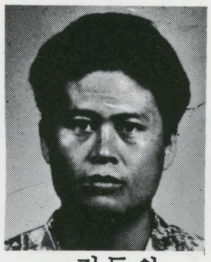
신옥순

이원숙

허영자

황봉연

노명숙


김동완

이춘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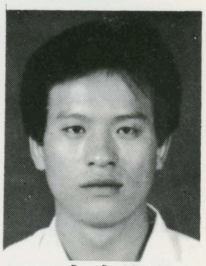
서임숙

이공원

김은희

이분선

홍진녀


이상진

정규택

(외12명)

해 설

유 래

· 굿은 무속신앙에서 비롯되어 연대는 확실치않지만 삼국시대 이전인것 같다.

· 평안도 지방의 대성산이란 곳에 여신령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황대 마누라"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이곳에서 기도정성을 드리면 꼭 소원을 이루어주는 곳이었다.〈특히 자식을 점지함〉

· 한가지 특이한 것은 매일같이 목욕을 하여야만하고 꼭 두손으로 비비어 빌어야 했으므로 이것을 "비나수"라 했다.

· 선왕도당 부근이라함은 대성산 황대 마누라를 비롯하여 부근의 문수봉 신령님, 주엄사 신령님, 노적봉 신령님, 모란봉 신령님을밀대 내림받이, 능라도 용왕 신령님을 총칭하여 도당부근 굿이라 하며 그 선왕님의 벌전을 풀어내는 굿이다.

내용전개

· 옛날에 대성산 부근에 사는 어떤 귀부인이 황대 마누라님께 빌어 여식을 얻어 시집을 보내게 되었는데 시집을 가면서 선왕 마누라님께 고운 치마 저고리 한벌을 바치고 갔다.

· 그런데 어느 가난한 집안의 여식이 그곳을 지나다보니 생전에 구경도 해보지 못한 고운 옷이 있으므로 그옷을 훔쳐다가 입게 되었는데 그만 원인모를 병에 걸리고 말았다.

· 때마침 그곳의 최고책임자(영주)의 여식도 시집을 갔는데 그 여식(혹은 공주라고도 함)도 원인모를 병에 걸리게 되었다.

· 천하의 명의와 온갖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고 더우기 병명조차 알 수가 없으므로 소문이 온 고을에 퍼지게 되었다.

· 마지막 수단으로 무당에게 물어보니 황대 마누라님의 노여움으로 그러하니 대선왕제를 올려 황대 마누라님을 달래드려야 병이 나을수 있다하여 대선왕굿을 하게되였다.

· 그 이후부터는 처녀가 시집을 가게되면 꼭 선왕님께 치마 저고리 한벌씩을 먼저 바치고 가야만 탈이 없었다 한다.

· 그것이 유래가 되어 공산치하와 6.25를 피해 월남한 평안도 지방의 강신무들에 의해 전해지고 있는 굿으로 그 남다른 존재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특 징

· 이 굿은 산 사람의 복락을 기원하면서 특징으로선

1. 매일 목욕을 해야하며,
2. 꼭 비나수(손비빔)을 해야하고
3. 자식을 점지해주는 소원성취가 있다.

· 특히 이굿을 할때는 도령과 처녀가 말을 타고 입장했다 한다.

※고 증 : 정대복(대한승공 경신연합회 고문)
지도위원 : 김동현 진행 : 박인오, 고용언.

진 행

구 분	담 당	전 개 내 용
무대설치		• 제단과 남선왕, 여선왕 나무를 설치한다. 각 선왕나무에 도령, 애기, 남자, 여자 옷을 건다
입 장	전 원	• 주악과 함께 입장한다 (입장순서) 대제기-꽃애기-제관-당주-피리-장고- 재금-징-남 · 여선왕-도령, 애기-무녀- 산신-불사-대신-신장-창부-장군-오방기
제 단	전 원	• 제물이 차려진 제단앞에 정열하여 대제를 시작한다 (제물 : 떡, 과일, 북어, 술, 촛대, 향로등)
	제 관	• 촛불과 향불을 피우고 현작 재배한다
	무 녀	• 당주, 남선왕, 여선왕, 도령, 애기도 함께한다
무 대	당 주	• 대제가 끝나자마자 비나수를 올린다 • 만세바지-온 신령님을 다 받아 좌정시킨다 • 선왕 넉두리-평안도 지방의 도당부근 선왕을 모신다 • 넉두리-사해 바다의 용선왕님을 모시고 돈 실어오는 타령을 한다 • 선왕춤 사방을 향해 무녀가 춤을 춘다 남선왕, 여선왕도 함께 춘다 • 대거리-대선왕이 여러가지 의대를 바꿔 입는다
	전 원	• 전원이 함께 어우러져 마당놀이를 한다
퇴 장	전 원	무대를 한바퀴 돈뒤 퇴장한다

축 제33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출연 축

〈행정자문위원〉

이익홍	승왈범	박희현	이계하	한공철
김병화	안석창	이상순	이석봉	김태준

〈명예시장·군수〉

신의주시	김상호	영변군	방영호	벽동군	강태원
의주군	김도원	운산군	김정희	초산군	박창해
용천군	장운학	태천군	김석구	위원군	곽자경
철산군	박성덕	구성군	최천근	희천군	최용묵
선천군	김정일	삭주군	최영균	강계군	신중규
정주군	전봉연	창성군	이계항	자성군	김병수
박천군	김상국			후창군	한진흡

평안북도중앙도민회

회장	조창석
부회장	유명화
〃	박윤이
〃	김여찬
〃	이병익
〃	김득린
〃	전봉연
〃	양자천
〃	백구섭
〃	장진명
〃	김태주
〃	이황회
〃	양대길
감사	이상준
〃	최준권
〃	황우연
사무국장	홍성오

평안북도중앙체육회

회장 박성덕

평안북도중앙부녀회

회장 박정숙

평안북도새마을협의회

회장 김상호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새마을부녀회

회장 이영자

평안북도중앙청년회

회장 이기원

평안북도중앙학우회

회장 이동일

祝

發　展

이북5도민회 경상북도 연합회

회 장 : 방　율　원

부회장 : 이 인 욱, 석 명 도, 김 원 수

구미시지구 이북5도민회 연합회

회 장 정　효　원

대구 경북지구 평북도민회

회 장 한　성　만

이북5도 경상북도 사무소

소 장 최　경　주